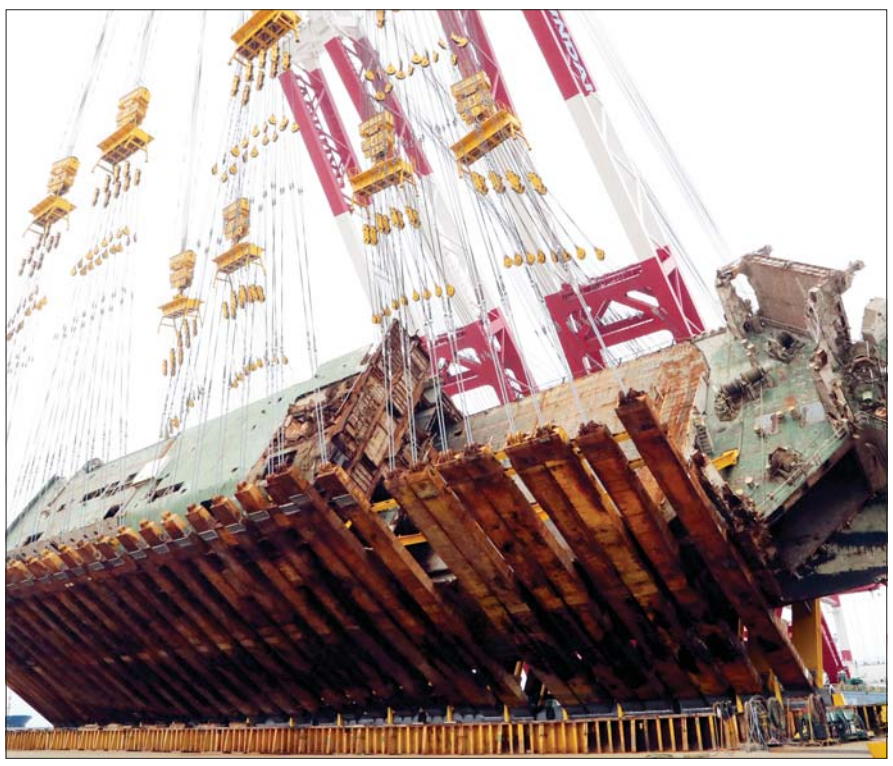

세월호, 내일은 바로선다 9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좌현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 개시를 하루 앞두고, 사전 점검하기 위해 선체가 40도가량 들어 올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 훈풍… 전남 에너지사업 뜬다

빛가람에너지밸리 등 인프라 활용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축' 핵심역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전남도가 남북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협력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 등 지역에 갖춰진 에너지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사업으로 제기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을 육성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한·중·일 전력망의 교차점인 광양만권에 '슈퍼그리드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빛가람에너지밸리에 에너지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할 것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 구상의 성패를 가늠할 전기 배송시스템과 ESS 시스템 기반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 한전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SW융합기업 500개사 유치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빛가람에너지밸리'가 이 구상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밸리에는 4월 말 현재까지 ESS, 지능형계량기, 저압직류배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310 곳이 투자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186곳이 투자했다.

오는 9월에는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가 착공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전남은 이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성공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후속조치로 ESS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광양만권 '슈퍼그리드 터미널' 구축, 에너지밸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 전력망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몽골과 중국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한·중·일 전력망과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가로축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력,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세로축,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몽골 고비사막의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량은 풍력이 연간 1110Twh, 태양광이 1500Twh로 추정되며, 러시아 극동지방의 수력은 연간 1139Twh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5·18 기념재단, 신임이사장 추천 속도

이사장추천委, 내일 후보군 논의

기념식 전까지 대행체제 마무리

5·18기념재단이 공석 상태인 이사장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5·18재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열려 신임이사장 후보군을 논의한다.

재단은 내주 열리는 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에는 이사장 대행체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일 회의에서 후보군을 추대해 내주 초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재단, 5·18단체, 광주시, 시민단체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됐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허달용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대표 등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김후식 이사장 직무대행 겸 5·18부상자회장, 조진태 상임이사, 임태호 이사, 나명관 설립동지회장 등을 파견했다.

이사장추천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회의에서 신망 있는 인사를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5·18을 이해하고, 진상규명 의지가 분명하며,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덕성에 흠결 없는 인사를 추천기준으로 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38주년 기념식 이전에 이사장 공백을 해소하자는 공감대 아래 재단과 시민사회,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5·18재단은 올해 3월 김영진 광주대 석좌교수를 신임이사장으로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사장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스스로 물러났다. /광주=김남중 기자

청년 창업 펀드에 100억 투자… 데스밸리 극복 지원

전남도, 모태펀드 출자 공모사업 선정

60% 이상 투자… 유망기업 도약 도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기업들의 초기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태펀드 자금 60억 원을 지원받고 펀드 운용사 보광창업투자(주)에서 10억 원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 100억 원의 60% 이상(60억 원)을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달 안으로 출자 기관과 조합원 총회를 갖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펀드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데스밸리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 3~4년 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상황을 말한다.

전남도는 또 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30억 원 규모의 '마그나4호 빛가람펀드', 50억 원 규모의 '전남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빛가람펀드는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했으며, 투자 기업 중 비철금속처리기업인 이맥스아이엔씨㈜는 약 7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청년 창업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은 창업한지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 문을 닫고 있다"며 "펀드투자 활성화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카네이션 화분 나눔 활동

장애·세대 넘어선 화합의 시간 가져

보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윤동호)은 지난 3일 복지관 이용자 10여명과 함께 보성남초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을 만들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분재교육 프로그램인 '다시 세상으로-Begin Again' 참가자들이 유치원생들에게 카네이션화분을 만들고 꾸미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나눔활동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노래와 율동을 선보여 장애와 세대를 넘어선 화합의 시간이 됐다.

나눔에 동참한 정모씨는 "이번 활동을 통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동호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보성=문쌍환 기자 m8527188@

순천시

도시동~해룡면 잇는 '동천1교' 내일 개통

순천시는 오는 11일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도사동과 해룡면을 연결하는 '동천1교'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동천1교는 기존 교량이 폭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대형 농기계와 화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국비 포함 57억원을 투입해 길이 150m, 폭 10.5m로 교량을 재가설해 개통했다. 교량의 기둥을 당초 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기둥간 거리도 15m에서 30m로 늘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으며, 보도를 새로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 공간을 확보했다. 순천시는 "동천1교와 홍내교 간 연결 도로가 아직 확장되지 않아 8톤 이상 대형 차량의 통행은 당분간 제한된다"며 "홍내교와 연결도로는 2022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김남중 기자

장흥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영세사업자·시장 상인 등 지역민 대상

올해 관광지·읍면 순회 등 확대 운영

장흥군은 최근 열린 정남진키조개 축제장과 토요시장 문화벼룩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을세무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은 그동안 전화, 팩스, 이메일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출장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축제장이나 토요시장 등 관광지와, 각 읍면을 순회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마을세무사 운영에는 방양원 세무사가 상담에 나섰다.

장흥읍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방양원 세무사는 군금고 지정심의회 위원 및 지방세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실적은 134건으로 군민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해결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군민의 세금고민을 편리하게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alice1008@